

LG전자,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에 4억 전달



LG전자 한국지역본부(본부장 박석원 부사장)가 11일 오후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억 원의 성금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에 전달했다.

LG전자 한국지역본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태안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약 500여 판매점에서 'I Love 태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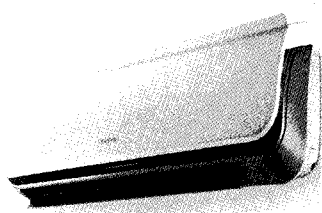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와 일부 대리점 등 500여 판매점은 고객들이 전자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 금액의 0.5%를 적립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또 LG전자 한국지역본부는 2월 한 달간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 주민들이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전자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별로 3~4%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피해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순회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LG전자 한국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300여 명은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지역에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LG전자 한국지역본부장 박석원 부사장은 "500여 판매점이 성금을 모금했지만, 캠페인에 동참해준 고객들의 뜻이라 밝히며 성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최고 혁신상(Comfort & Design Award) 수상



삼성전자의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이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인 '모스트라 콘베노'에서 수상하는 최고혁신상(Comfort &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11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공조전시회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Mostra Convegno Expo)'에 참가한다.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 최대의 냉난방 관련 기기 전시회로 올해 행사에는 다이킨, 산요 등 약 2800개사가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정용 고효율 인버터 에어컨, DVM 등 가정용과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17종 64개 모델을 선보인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 인버터 에어컨(프로젝트명 몽블랑)은 올해 출품된 제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사용편의성이 높은 제품에게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Comfort &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최고혁신상은 혁신성과 편리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제품을 선정하며 이탈리아 산업디자인협회(The Industrial Design Association)가 후원한다.

이번에 수상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인버터 에어컨은 유럽의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겨냥한 삼성전자의 야심작. 자동셔터기능(Auto Roof Shutter), 수파청정, DNA필터, 열대야제거 기능 등 삼성전자 에어컨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한 데 모았다.

삼성전자는 이 고효율 인버터 에어컨을 앞세워 480만대 규모의 유럽 시장을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유럽에서는 인버터 에어컨 시장이 전체 시장의 50%에 달하는 240만대 규모다.

박현중 삼성전자 에어컨마케팅담당 상무는 "최고급 에어컨 몽블랑을 앞세워 유럽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에서 일류화를 이루고 올해 유럽지역 37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요뉴스 (www.sec.co.kr)

NO	주요뉴스	일자
1	삼성전자, 네덜란드에서 'SOUL' 프리미엄 마케팅	2008/03/17
2	삼성전자, '미니스커트 시즌2' 출시	2008/03/17
3	삼성 파브(PAVV), 소비자 초청 론칭 행사 열어	2008/03/17
4	디지털프라자에서 빵 굽는 냄새가 솔솔	2008/03/13
5	삼성전자, '애니콜 햅틱폰' 마케팅 본격 가동	2008/03/13
6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DVD 캠코더 출시	2008/03/13
7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최고혁신상(Comfort & Design Award) 수상	2008/03/12
8	롤라 대통령, 삼성전자 브라질 사업장 방문	2008/03/06
9	WCG 2008 삼성 유로 챔피언십 개막	2008/03/06
10	삼성전자, B2B 전략제품으로 세계최고 IT기업 도약 선언	2008/03/04

LG전자 주요뉴스 (www.lge.co.kr)

NO	주요뉴스	일자
1	LG전자 평판TV 야심작, 볼고객 찾아 나선다	2008/03/17
2	LG전자, '뷰티 핑크' 출시	2008/03/14
3	LG전자, 美 터치스크린 휴대폰 시장 맹활약	2008/03/12
4	LG전자,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에 4억 전달	2008/03/12
5	LG전자, 휘센 에어컨은 갤러리에서 구입하세요	2008/03/11
6	컬럼비아 MBA, LG전자 방문	2008/03/11
7	LG전자, 2년 연속 임금동결 타결	2008/03/10
8	LG전자, 엑스캔버스 TV 특별가 공급	2008/03/07
9	LG전자, LCD모니터, 유럽 북미에서 호평	2008/03/06
10	LG디오스, 전기 부담 더 줄였다	2008/03/04

쿠쿠홈시스, 탑컨트롤 방식의 6인용 IH 압력밥솥 출시



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홈시스(주) (대표:구본학)는 훈수 시즌을 맞아 신혼 부부와 소가족을 타깃으로 한 '6인용 탑컨트롤 에디션'(모델명: CRP-HJXG0610FR)을 출시했다.

탑 컨트롤 방식은 제품 작동 시 사용자가 허리를 구부려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한 것으로, 주요버튼을 제품 상단으로 올려 안정된 자세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다.

탑 컨트롤 방식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쿠쿠홈시스만의 디자인 철학으로, 탑 컨트롤 방식의 6인용 IH 압력 밥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쿠쿠의 히트작인 황금동 내솥을 적용해 밥알 한알 한알 속까지 차지고 부드러운 밥맛을 구현한다. 또한 고열, 고압스팀 등 어떠한 자극에도 견딜 수 있는 쿠쿠의 압력전용 '엑스월시인(XWALL-SHINE)' 코팅이 적용됐다.

디자인적 요소도 한층 강화됐다. 손잡이 부분에 명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적용해 여성을 자극한다. 특히, 장미빛 갈라와 제품 상단 부분의 장미꽃 패턴은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 훈수 가전으로도 손색없다.

14중 안전장치, 입체보온센서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도 최대한 고려했다. 취사 중 발생하는 밥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가 용이한 '밥물고임방지메수로', 작동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음성 효과음 안내' 기능도 장착돼 있다. 만능찜 기능을 채용해 갈비찜, 잡채 등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 요리가 서툰 주부들이 활용하기에 좋다. 김초밥, 잡곡, 현미밥, 죽, 누룽지, 삼계탕 등의 조리가 가능하고 fresh한 미발아 기능, 맞춤밥맛 전용 버튼이 탑재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작년에 출시했던 8인용 탑컨트롤 제품이 월평균 1만 여대가 팔릴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 동일 디자인의 6인용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6인용 밥솥은 8~10인용 제품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나 신혼 부부 등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으로, 이번 출시된 6인용 IH 압력밥솥도 훈수 시즌을 맞아 신혼 부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 제품은 쿠쿠몰과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쇼핑몰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대우 '드림-업', 입소문 마케팅 전략



대우일렉(www.dwe.co.kr, 대표 이승창)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클래식 드림세탁기 '드림-업' 띄우기에 나선다.

대우일렉은 13일 지난 2월 한달간 모집한 클래식 드림세탁기 체험단 "클라씨 프로"의 발대식을 갖고 8주간의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

다.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체험단은 모집과정에서 약 2000여명이 지원하여 '드림-업' 세탁기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그 가운데 주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심사하여 선발된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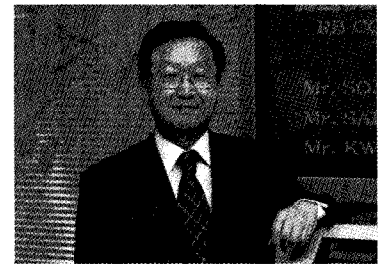
이번 체험단은 클래식 드림세탁기 '드림-업'을 8주간 사용하면서 대우일렉 홈페이지 및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를 작성하게 되며 온라인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체험단 상호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대우일렉은 이번 체험단 미션을 완수한 블로거 전원에게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우일렉 국내영업본부장 오찬서 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우일렉의 상반기 히트작이 될 드림세탁기를 더 효과적으로 많은 주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칭찬 일색의 형식적 리뷰가 아니라 사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고 수용함으로써 차기 모델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클라씨 드림세탁기 '드림-업'은 드림의 높이를 기존제품보다 11cm 끌어올리고 입구를 위로 향하도록 기울임으로써 세탁물을 넣고 꺼낼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지난 1월말 출시 이후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코맥스, 적극적 해외공략 시장 나선다



코맥스는 요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에

서 제도약을 준비 중이다. 각 가정의 모든 가전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최근 급속도로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도어폰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홈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코맥스는 경쟁상대를 세계로 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결과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 있다. 그렇지만 현재 코맥스가 몸담고 있는 홈 네트워크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코맥스 변봉덕 회장은 “코맥스는 인터넷에서 시작해 비디오 도어폰 · 홈오토메이션 · 홈네트워크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고객 요구를 분석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 덕분에 국내 1000만가구 이상이 코맥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시장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IBM · HP · 시스코 ·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쟁쟁한 IT 기업이 홈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변 회장은 “코맥스는 홈 네트워크 선두주자로서의 앞선 기술력,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디자인,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 네트워크 제품 개발에서, 제조, 판매, 시스템 구축, 유지 관리까지 홈네트워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주거 문화 및 인프라 환경에 맞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거래해 온 해외 에이전트와의 유대 관계를 통하여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한 해외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에 맞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공략 시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오토닉스, 송도 u-IT 단지내 연구소 착공식 거행



(주)오토닉스는 3월 6일 박환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u-IT 클러스터 단지내에 송도 연구소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오토닉스는 지난해 3월 인천 송도에 조성되는 송도 유비쿼터스 정보 기술 연구 단지(송도 u-IT 클러스터) 입주 기업 선정 시, 센서 부문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9: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입주 기업(제조 지역)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1년 여의 준비끝에 이번 착공식을 가져 2008년 10월말 완공, 입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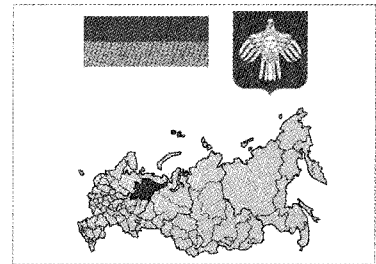
오토닉스가 이번에 착공하는 연구단지는, 대지 6,991 평방 미터(약 2118평), 건축 면적 8,100 평방 미터(약 2475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2개동(사무동 1개동, 연구동 1개동)으로 건축되며, 이는 1차 입주 기업 9개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오토닉스 박환기 대표이사는 오늘 착공식 기념사에서 “금번 u-IT 연구단지 입주를 계기로 연구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약 15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 완공 및 인력 확충 시, 오토닉스의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이 현재의 18%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며,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토닉스의 연구 개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디바이스, 코미공 에너지장관 친서 전달



디지털디바이스(1,590원 30+19%)는 코미공화국 대통령의 친서 외에 게라시모브 에너지자원 부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디지털디바이스가 100% 지분출자한 Zao West 이사가 판매 가능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게라시모브 에너지자원부장관은 이 친서에서 “Zao West 이사가 광구 탐사, 시추, 원유채굴 등의 사업을 공화국 이젠스크 유정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Zao West 이사는 공화국 집행기관들과 함께 기술 설계 자료 증명, 연장 시추, 시험생산, 실질적 원유 채굴 작업 등 승인에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화국 내에서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미공화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양국간 득이 되는 협력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디바이스는 소스노골스크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Zao West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 주주다.